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과 활용방안

지역학 활성화를 중심으로

장충희*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세계유산과 지역, 지역학과 세계유산 |
|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 5. 맺음말 |
| 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활용 현황 |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학의 관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학의 연계와 상호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을 선행하였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은 모두 '연속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타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한 특징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활용현황 분석을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대중화 행사 현황', '세계유산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어지는 4장에서는 세계유산의 지역 활성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세계유산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로 지역에 위치한 세계유산이 관광거점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팬데믹을 전후하여 세계유산이 가진 파급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 전북연구원, E-mail: jch0404@hanmail.net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써 유산자체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지역학과 세계유산 활성화 측면에서의 상호 발전 방향성을 ‘지역학에 대한 연구 - 지역민과의 공감 - 지역 문화의 세계화’라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닌 지역자원으로써 세계유산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지역학, 세계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산, 공감과 세계화

1. 머리말

1972년 유엔정기총회를 통해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지정되기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늘날 문화의 척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유산(Heritage)’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치를 후대에 보전하는 개념이 강하며, 그 형태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각각 736·737·738번의 지정번호로 세계유산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문화유산 14개소(가야고분군 포함), 자연유산 2개소 등 총 16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기준) 이는 아시아의 세계유산 보유국 42개국 중 중국(56), 인도(41), 이란(27), 일본(25), 튀르키예(21)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보유현황이다.¹⁾ 또한, 90년대 이후 등재 추이 역시 90년대 5건, 2000년대 5건, 2010년대 6건, 2020년대 2건(진행 중) 순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이에 따른 활성화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 예술 등 지역학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유산과 지역학 측면에서 참조가 되는 미국의 샌안토니오의 전교회(2015 등재) 세계유산의 경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유산을 비롯한 관리기관인 세계유산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역사, 예술,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²⁾ 이러한 경향성은 세계유산이 지역학의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참조.

2) Official website of the City of San Antonio, 2020, 『World Heritage Center Public Input

목적 중 하나인 지역발전으로의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잠정목록 등재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산의 경우,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부산의 도시 경쟁력 향상, 도시 이미지 제고, 도시 방문 의향 증가, 도시의 홍보 효과 극대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³⁾

세계유산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세계유산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측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문이화⁴⁾는 2015년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활성화의 기초에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 ‘역사도시’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주빈·김선영⁵⁾은 ‘한국의 서원’(2019년 등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 특히 서원이 가지는 문화적 친숙성에 기반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미영⁶⁾은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을 소셜미디어 기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 및 영상콘텐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놀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주변 경관 활용, 전통의상 도입, 흑서·한기 대비, MZ세대 홍보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계유산은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그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진행된 ‘활성화’방안을 다지는 측면에서 세계유산이 지역 그리고 지역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미래먹거리 등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역학의 측면에서 지역민들에게 세계유산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양한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전북특별자치도⁷⁾의 경우 최근인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23.9. 사우디 리야드)에서 가야고분군(Gaya Tumuli)에 대한 세계유산

Survey Results], p.2.

- 3) 김형균 외, 2015, 『피란수도 부산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125~133쪽.
- 4) 문이화, 201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활성화 전략 -익산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1, 29쪽.
- 5) 이주빈·김선영,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 백제역사유적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와 융합』 43-6, 한국문화융합학회, 902~907쪽.
- 6) 방미영, 2023,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9-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53~254쪽.
- 7) 이 후 장, 절을 제외한 곳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약어인 ‘전북자치도’를 사용함.

등재가 결정되면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⁸⁾ 또한, 2024년 출범한 전북자치도의 주요 전략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 전통문화에 대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활용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도출하고 향후 지역발전 및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세계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은 총 5건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문화유산은 4건, 자연유산은 1건이며, 모두 타 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계되는 연속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황은 세계유산에 대한 요약과 등재기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각각의 전북자치도 세계유산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⁹⁾

1)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고창, 2000년)

• 고창의 고인돌 유적 요약문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무덤의 일종이며,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한 지역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등재기준은 (iii)을 충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고창의 고인돌유적(2000년),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정읍의 무성서원(2019년), 고창의 갯벌(2021년), 남원 가야고분군(2023년).

9) 전북자치도 세계유산 현황자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및 각각 세계유산 관리센터의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다.

• 고창의 고인돌 유적 등재기준

기준 (iii) :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례 및 제례를 위한 거석문화 유산이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세계의 다른 어떤 유적보다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중에서도 고창의 고인돌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⁰⁾

• 고창의 고인돌 유적의 특징

1. 1.8km의 좁은 범위에 440여 기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밀집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한 분포 상을 보여준다.
2. 탁자식과 바둑판식, 개석식 그리고 탁자식에서 바둑판식으로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지상에 무덤방이 드러난 지상석곽식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석곽식은 덮개돌의 하단부에 높이가 낮은 판석이나 여러 개의 판석을 덧대어 지상에 석곽 구조물을 만들고 덮개돌을 외각에는 받침돌을 판석 높이로 세워 무덤방이 지상 또는 반지하에 있는 형태로 탁자식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고 있다(1992 보고서:전체 45기).
3. 기둥모양의 받침돌로 덮개돌을 지탱하고 있는 웅장하고 거대한 바둑판식 고인돌이 곳곳에 소재하고 있어 고인돌 왕국으로서 걸맞은 위엄과 풍광을 보여준다.
4. 2004년의 조사에서 민무늬토기편과 붉은간토기편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1965년의 발굴·조사된 상갑리고인돌(A, B, C호) 인근 구릉의 지표에서 간돌검 손잡이 조각 1점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고인돌에서는 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5. 정상부의 성틀봉 주변 15개소, 중봉 주변 8개소 등 주로 7~8부 능선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면서 번은 범위에 걸쳐 고인돌 채석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6. 받침돌의 형태가 다른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는 돌기둥 모양의 석주형이 많이 보이는 점이다

10)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홈페이지 참조.

2)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2015년)

• 백제역사유적지구 요약문

대한민국 중서부 산지에 위치한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에 남아 있는 유적은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700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 왕국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된 초기 삼국 중 하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과 연관된 공산성(公山城)과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 부여 사비성(泗沘城)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정림사지(定林寺址),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끝으로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 미륵사지(彌勒寺址) 등으로, 이들 유적은 475년~660년 사이의 백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百濟化)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등재기준은 (ii)와 (iii)을 충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기준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기준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¹⁾

11) 대한민국,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참조.

•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특징

1. (미륵사지) 미륵사지(彌勒寺址)는 익산시 금마면 표고 430m의 미륵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한다. 즉 무왕 부부가 사자사(師子寺)에 가던 도중 용화산 밑의 연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났는데, 왕비의 부탁에 따라 이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미륵사가 백제의 국력을 모은 국가적 가람이었고, 습지를 매립하여 평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극락에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경전의 내용에 따라 가람배치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항은 1974년부터 이어진 23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찰의 창건 연대는 무왕 재위기인 7세기 초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사는 중문-탑-금당이 일직선 상에 배열된 이른바 백제식 <1탑-1금당> 형식의 가람 세 동을 나란히 병렬시킨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양쪽의 동원(東院)과 서원(西院)보다는 가운데 중원(中院)의 면적과 금당 및 탑의 규모가 더 커 중심을 형성하였다.

2. (왕궁리 유적) 왕궁리유적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다. 왕궁리유적은 백제 왕실이 수도인 사비(부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왕궁 유적이다. 왕궁리유적은 용화산에서 시작하는 능선의 말단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위에 만들어졌다. 높은 곳은 깎아 내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왕궁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였다. 담장이 들어설 지점은 바깥쪽을 경사지게 깎아내서 왕궁 내부가 담장 바깥보다 3~4m 이상 높게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간 조성은 중앙부를 높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높은 대지 위에 만들어진 건물이 궁장 밖에서 보면 더욱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왕궁리유적은 1976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그 전모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왕궁관련 시설, 금과 유리 등을 생산하는 공방시설, 사찰로 구성되어 있다. 왕궁관련 시설은 장방형의 석축 궁장을 비롯하여 동서석축, 총 36기의 건물지이다. 특히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가 발견되어 백제 왕궁 구조 및 공간구획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 건물지는 부여의 관북리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규

모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왕궁은 후에 그 기능이 사찰로 바뀌었는데, 사찰로 기능이 바뀌는 시기에 대해선 백제말기(7세기 중엽)~통일신라 초기(7세기 후엽)라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재 남아있는 오층석탑이 이를 보여준다.

3) 한국의 서원(정읍, 2019년)

• 한국의 서원 요약문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등재기준은 (iii)을 충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서원 유적 등재기준

기준 (iii) : 신창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중에서도 정읍 무성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²⁾

• 정읍 무성서원의 특징

1. 무성서원은 9개 서원 중 사림들의 향촌 교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조선시대를 잘 보여주는 봉심안(奉審案), 강안(講案), 심원록(尋院錄), 《원규》 등의 문헌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서원철폐령에도 보존될

12) 박정민, 2020,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5~281쪽.

수 있어서 서원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3.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선비문화의 중심지, 선비문화의 실천지라는 세 가지 주제를 잘 보여준다.

4) 한국의 갯벌(고창, 2021년)

• 한국의 갯벌 요약문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등재기준은 (x)을 충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갯벌 유적 등재기준

기준 (x) :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과학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는 위협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한다.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들의 삶의 공간이자 서식지이며, 특히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철새의 대여정 중 유일한 휴식지이자 중간 기착지이다.

한국의 갯벌 중 고창 갯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

• 고창 갯벌의 특징

1.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 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2.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13)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홈페이지 참조.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3. 고창갯벌에는 펼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펼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등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5) 가야고분군(남원, 2023년)

• 가야고분군 요약문

가야연맹 내에는 7개의 대등한 수준의 최상위 지배층 고분군이 독립된 분지별로 분포한다. 가야연맹 지배층의 고분군은 공통적으로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에 지속적으로 군집하여 조성되었다. 가야식 석곽묘의 매장부 평면유형, 봉토 축조방식, 부장된 토기 기종 구성의 동질성은 가야연맹의 결속과 지리적 범위를 알려준다. 정치체 별로 지역성을 띠는 묘제와 토기 양식, 대등한 수준의 위세품, 자율적 교섭관계를 보여주는 교역품은 연맹을 구성한 각 정치체가 자율성을 가진 수평적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등재기준은 (iii)을 충족하였다.

• 가야고분군 등재기준

기준 (iii) : '가야고분군'은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였던 가야의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가야고분군 중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⁴⁾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특징

1.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유곡리와 두락리에 걸쳐

14)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위치한다. 고분군의 명칭은 고분이 분포하는 지역의 명칭을 따랐다. 5~6세기 가야연맹 중 가장 서북부 내륙에 위치하였던 고분군으로 가야연맹의 최대 범위를 드러내면서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가야정치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2.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는 봉토분 40기가 조성되어 있고, 고분군 주변에는 1936년에 수해로 인근의 하천변에서 이전해 온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에 고고학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2000년대에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의 고분군임이 밝혀졌다. 가야의 서쪽 영역을 알려주는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수목정비 등 고분군 보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이 운봉고원의 가야 정치체는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 성장한 정치체로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5세기 후반 가야연맹의 서북부 내륙지역으로의 지리적 확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는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석곽묘, 석실묘가 축조되었다. 봉토가 큰 고분은 구릉지의 정상부나 능선을 따라 조성되고, 봉토가 작은 고분은 봉토가 큰 고분의 주변이나 구릉지 사면부에 축조된다. 석실묘는 6세기 전반에 구릉지 남측 사면부에 조성되었다. 가야 멸망과 함께 고분의 축조가 중단되었다.
4. 고분군은 서쪽 평지에서 잘 보이는 구릉지에 입지하며, 구릉지의 능선에는 대형 고분이, 사면에는 중소형 고분이 군집하여 조성되어 있다. 5세기 후반에 조성된 32호분에서는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배치되는데, 피장자가 묻힌 주곽에는 피장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 무기류, 소량의 토기가 부장되며, 부곽에는 대형의 토기가 다량으로 부장되는 차이가 있다.
5. 가야식 석곽묘에 부장된 토기는 고배·기대·장경호로 구성되며, 토기의 세부양식에 대가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 대가야와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한편 고분에서 출토된 중국계 청동거울과 백제계 금동신발, 목걸이, 유리구슬은 백제 왕릉의 부장품과 매우 흡사하여 가야가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은 4개의 문화유산과 1개의 자연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개별 유산이 아닌 타 지역과 연계되는 연속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등재 이후 대한민국에서 등재가 추진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한국의 서원(2019), 한국의 갯벌(2021), 가야고분군(2023) 등의 세계유산 역시 연속유산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성과 가장 부합하는 것이 전북자치도 세계유산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유산으로의 등재가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과 ‘각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보존 및 관리,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성주 태실로 시작한 세계유산 추진 방향성을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 권고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⁵⁾

이러한 경향성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유산의 등재 경향 속에서 연속유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세계유산협약’이라고 하는 초국가적 협약의 목적인 “당사국 사이의 협동과 협력 증진”이라는 이상에 국가와 국가 혹은 더 작은 범위의 국가 내 지자체 간의 협력이라는 유네스코의 취지를 이상적으로 관철하는 등재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국내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성, 나아가 유네스코의 등재 경향성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연속유산-세계유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계된 지자체 및 국가와의 협동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보가 가장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유산이 아닌 연속된 상태 혹은 연계된 하나의 역사적 배경 등이 그 유산의 성격을 규명 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착안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 특히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보존 및 정비, 활용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를 넘어 시민단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활용 현황

머리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치를 후대에 보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15) 이재완, 2023,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선정에 대한 고찰』, 『문화재』 56-3, 문화재청, 7쪽.

16) 문화재청, 2018,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전략 연구용역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43~50쪽.

‘2022~2026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주요 내용

	내 용
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목표	·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미래를 여는 문화재스마트 행정
기본계획 방향성 및 시사점	· 2012년부터 핵심목표로 상정된 ‘활용을 통한 국민공감’ 개념의 확대 및 강화 ·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래먹거리’ 기반마련 및 가치공감 추구 ·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 중심의 문화재 정책 지향 ·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 및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유산관리의 디지털 관리(보존 및 활용)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보전의 의미가 ‘보호중심’에서 ‘가치의 공감’으로 경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 수립된 ‘2022~2026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주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대중들의 공감과 가치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공감되었으며, 그 가치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활용현황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들은 적극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가치공감의 확보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서는 적극적인 문화유산 활용사업¹⁸⁾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내용들이다.¹⁹⁾

17) 2024.5.17. 국가유산 체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24.6.)에는 문화유산과 문화재가 병기되었음을 밝힘.

18) 크게 5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생생문화재 사업,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재야행사업이다.

19) 자료는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202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자료를 참조하였다. 2022년 기준 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총 573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자치도에서는 총 54개의 문화재 활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573건) 중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원사업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이 16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9건, 문화재야행 사업 8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4건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주요형태별로 살펴보면 체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14건, 야간, 8건, 복합행사 6건, 답사 및 탐방 3건, 숙박 2건, 인력양성과 의례 각각 1건 순으로 확인된다. 전북자치도 시도 단위 활용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고창 2개 사업(생생1, 산사1), 군산 8개 사업(생생2, 향교 1, 야행1, 산사 4), 김제 6개 사업(생생2, 야행1, 산사2, 고택1), 남원 6개 사업(생생1, 향교2, 야행1, 산사1, 고택1), 무주 2개 사업(생생1, 야행1), 부안 2개 사업(생생1, 야행1), 순창 3개 사업(생생1, 향교2), 완주 1개 사업(생생1), 익산 6개 사업(생생1, 향교4, 야행1), 임실 4개 사업(생생1, 향교2, 고택1), 장수 3개 사업(생생1, 향교1, 산사1), 전주 5개 사업(생생2, 향교1, 야행2), 정읍 5개 사업(생생1, 향교3, 고택1), 진안 1개 사업(생생1)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우 14개 시군이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군산, 김제, 전주가 각각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교사업의 경우 익산과 정읍이 각각 함열향교와 고부향교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되고 있었다. 문화재야행사업은 14개 시군중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익산, 전주(2건) 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고창, 군산, 김제, 남원, 장수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김제와 남원, 임실, 정읍 4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자치도 문화재 활용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

국가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국가민속 문화재	기념물			국가무형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3	11	3	15	1		1
시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3	3	11		1	12	
국가등록 문화재	11						

활용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정문화재는 총 75건이며 이는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재 1,010건(2023년 기준)의 7.4%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활용된 문화유산 유형으로는 사적이 15건(20.0%)이며, 문화재자료 12건(16.0%), 보물, 시도기념물, 국가등록문화재 각각 11건(14.7%), 국보,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각각 3건(4.0%), 명승, 시도민속문화재 각각 1건(1.3%)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내 문화유산 유형별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국보 33.3%(9건 중 3건), 보물 10.1%(109건 중 11건), 국가민속문화재 21.4%(14건 중 3건), 사적 34.9%(43건 중 15건), 명승 9.1%(11건 중 1건), 천연기념물 0.0%(33건 중 0건), 국가무형문화재 11.1%(9건 중 1건), 국가등록문화재 12.1%(91건 중 11건, 이상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1%(275건 중 3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3.9%(76건 중 3건), 시도지정 기념물 8.1%(135건 중 11건),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2.8%(36건 중 1건), 문화재자료 7.5%(159건 중 12건), 시도등록문화재 0.0%(10건 중 0건, 이상 시도지정문화재)가 확인된다.

비중을 살펴보면 사적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국보 33.3%, 국가등록문화재 12.1%, 국가무형문화재 11.1% 순으로 대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활용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시도지정의 경우 대부분 10% 안쪽의 활용 비중을 보인다.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시도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각각 0%,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1%,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2.8%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나름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계유산 활용 측면에서 그 내용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지원 활용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 왕궁리 유적(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 문화재 야행 - 왕궁에 나타난 백제무왕’ 프로그램 이외에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읍의 무성서원의 경우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읍 고부향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활용이 문화유산 자체의 정비와 보존 이외에도 주관기관(시민단체), 참여대상의 공감과 모집,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시설물, 장소 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세계유산의 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관련 대중화 행사 현황

세계유산은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의 지원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화 행사가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세계유산에서 진행된 대중화 행사 현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대중화 행사는 일반 행사/전시/공연/축제/미디어/기타로 분류하였다.²⁰⁾

(1)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고창)

①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고창군에향 청년회	고창 고인돌 체험마당 (2004~2009까지 확인)	매년 음력 9월 9일경	고인돌 선사마을

② 전시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	고창고인돌 박물관	기적의 빛, 희망을 밝히다	22/10/01~23/08/27	
2		고인돌박물관의 제도약	22/01/07~22/08/28	
3		7인7색 고인돌사랑 사진전	18/10/10~19/03/31	
4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군의 집중분포와 다양한 조형미’ 전	17/09/28~18/03/31	
5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사진전 돌, 생명을 담다		
6		사진으로 본 고인돌의 세계, 고창 고인돌 발굴기록사진전	14/04/09~14/07/09	

③ 축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전라북도 고창군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 미디어아트 - 고창 고인돌유적 별빛기행 -	23.09.15.~10.14	
2	고창운곡생태 문화공동체 고창군	제4회 세계유산 '킴돌 그리고 삶을 있다'_고창 고인돌야행	23.05~09	
	고창군	고창고인돌 야행 드론쇼 - 드론, 선사의 밤을 엿보다 -	23.9.15.~9.16	

20) 자료 수집은 웹서핑 및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진행함.

④ 미디어

순번	제목	방송사/연재처	방송/연재 기간
1	고인돌 나라의 야물	네이버웹툰	2010.1.4.~(20회)

⑤ 기타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관련 인물	기타
1		대동역사기행	2019.8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 청동기 시대로 떠나는 여행		

(2) 백제역사유적지구

①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국립익산박물관	시네마 인 미륵사지	23.09.17	국립익산박물관 옥상정원
2	국립익산박물관	2023년 국립익산박물관 추석 문화행사	23.9.27.~10.1	국립익산박물관 일대
2022년부터 매년 추석연휴에 행사를 진행함.				

② 전시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13.11.27~15.07.26	
2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7특집전 “미륵사지의 막새기와”	17.09.12~17.12.31	
3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고려시대의 미륵사	18.09.11~18.12.30	
4	국립익산박물관	사리장엄舍利莊嚴.탑 속 또 하나의 세계	20.01.10~20.04.26	
5	국립익산박물관	녹색 유약, 녹유綠釉	20.08.04~20.11.22	
6	국립익산박물관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	20.12.15~21.03.28	
7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21.10.19~22.02.13	
8	국립익산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100년 전 미륵사 터와 석탑	22.04.13~22.10.03	
9	국립익산박물관	전북의 고대 성곽	23.01.10~23.05.28	
10	백제왕궁박물관	왕궁리오층석탑의 신비	23.10.17~23.11.19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1	백제왕궁박물관	익산益山을 그리다	22.12.20~23.04.30	
	* 문화제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특별전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됨			
12	백제왕궁박물관	백제왕궁, 천년의 길	22.08.04~22.10.16	
13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유산 백제	16.11.29~17.01.30	

③ 공연

순번	공연종류	공연제목	공연장소	공연날짜
1	야간 음악공연	백제왕궁 달빛공연	왕궁리유적	2022.04

④ 축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익산시	익산 문화제야행	23.4.7.~4.9	6년 연속 시행중
2	백제세계유산센터	2023 세계유산축전 - 백제의 가치를 새기다 -	23.07.07.~07.23	2020, 2021년에도 시행
3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문화유산주간	23.07.08.~07.14	2018년부터 매년 진행중
4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전라북도 익산시	2023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23.09.09.~10.09	3년 연속 시행중

⑤ 미디어

순번	제목	방송사/연재처	방송/연재 기간	기타
1	GOGO 백제역사유적지구	네이버 도전만화 / 다음 웹툰리그	17.10.17.~12.5	
1-2	고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유튜브(무료공개)	18. 11. 30.	
2	미륵사지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제페토	23.01.	

⑥ 기타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기타
1	어린이용 저서	박상기	2022.12	백제 최후의 날	
		이은석	2018.9	백제역사 유적지구 : 문화의 왕국을 찾아서	
		이봉직	2022.6	백제의 아이	
		정재윤	2019.11	백제역사유적지구	
		스콜라스 편집부	2016.3	EBS 만공 한국사 11 : 미륵사지 석탑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기타
2	대중서	윤용희	2023.10	백제 기와 연구	
		김희태	2019.4	문화제로 만나는 백제의 흔적	
		이내옥	2015.06	백제미의 발견	
		남충우	2022.8	전북 익산 미륵사(彌勒寺)의 반격	
		이병호	2019.8	백제 왕도 익산, 그 미완의 꿈	
3	전공서적	김낙중	2021.10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김창호	2022.6	고구려와 백제의 금석문	
		성정용 외	2022.5	新編 사비백제사	
		배재호	2023.7	한국의 불상 : 고구려·백제·신라 편	
4	도록	한성백제박물관	2022.9	백제의 산성	
		국립익산박물관	2021.11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3) 한국의 서원

①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정읍시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	2019.10.11	무성서원
2	정읍시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 행사	2020.7.8	무성서원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0.07.08	정읍시청
4	무성서원	춘향제	2023.03.10	무성서원
		매년 시행함		
5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	살아숨쉬는 향교서원사업-문화재청(국가유산청) -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 -	2021.	무성서원 외
		서원 스테이 프로그램(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등은 2020년부터 진행됨		

② 전시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	국립전주박물관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	18.09.04~18.09.30	
1	정읍시립박물관	최치원 진영 공개 및 특강	19.8.31.~9.29	

③ 공연

순번	공연종류	공연제목	공연장소	공연날짜
1	음악공연	비바체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	무성서원	21.10.16
2	음악공연	2021 정읍시립국악단 정기공연 무성서원 예약	정읍시예술회관	21.12.1

④ 축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정읍시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K-POP 콘서트	19.10.12.~10.13	

⑤ 기타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관련 인물	기타
1	전공서적	정수환 외	2019.05	도동서원 무성서원		

(4) 한국의 갯벌

①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고창갯벌센터 월별프로그램, 찾아가는 고창갯벌학교	매월	고창갯벌센터 또는 학교

② 축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고창갯벌축제위원회	고창갯벌축제	23.6.23.~6.25	매년 시행

③ 기타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기타
1	전문서적	해양수산부	2023.6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서해·남해서부	

(5) 가야고분군

①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가야고분군 팸투어	23. 6. 1.	가야고분군

② 전시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	남원시 향토박물관	아막산성·가야 유물 특별전	22.11~23.2	
2	남원시청	남원가야 토기 재현 작품 전시회	20.10.6.~10.8	
3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분성-칼(劒)과 현(紘)	19.12.3.~20.3.1.	
4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웹툰놀이터	23.09.26.~24.02.11	

③ 축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남원시관광협의회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19.11.7	

④ 미디어

순번	제목	방송사/연재처	방송/연재 기간	기타
1	가야웹툰 공모전	국립김해박물관, 고령군	2018~현재	

⑤ 기타

순번	유형	저자	출간일	제목	기타
1	전공서적	경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2	전공서적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6.10	가야 고고학개론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 대중화 행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의 활용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익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지도와 함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나 공연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2020년을 전후하여 등재된 무성서원이나 고창의 갯벌은 상대적으로 대중화 행사가 적은 모습을 보인다. 가장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의 고인돌의 경우 인지도나 인프라(박물관 건립)가 우세함에도 상대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보다 적은 대중화 행사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가야고분군(남원)의 경우 대부분이 경북과 경남에 관련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전시시설물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화 행사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관련 교육 현황

지역유산으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관련 교육을 통해서도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유산 관련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학의 정규교과과정과 관련 기관들의 강연(특강)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전북자치도 대학별 세계유산 관련 교과목 현황²¹⁾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중 세계유산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진행된 과목은 총 7개가 확인된다.(2023년 기준). 이중 학과에 소속된 전공과목은 4개 과목으로 각각 사학과, 역사콘텐츠학과, 역사학과 등 역사와 문화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반면 교양과목의 경우 3개의 개설이 확인되는데 역사문화학과와 교양학과, 교내연구소에서 강의를 주관하고 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대학별 세계유산 관련 교과목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전북자치도 대학별 세계유산 관련 교과목 현황

순번	개설대학	강좌명	학점	개설학기	분류	개설학과	비고
1	전북대학교	호남지역사	3	1	전공	사학과	
2	전주대학교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3	2	전공	역사문화콘텐츠학과	
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고고학	3	2	전공	역사문화학과	
4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2	1,2	교양	역사문화학과	
		세계문화유산활용실습	2	2	선전	역사문화학부	
		세계유산과지역사회	2	2	선전	역사문화학부	
		세계유산학의 이해	3	1	기전	문화유산학전공	
		익산, 도시와 사람	3	2	교양	익산학연구소	
5	군산대학교	한국의 문화유산	3	2	전공	역사학과	
6	우석대학교	문화유산의 이해와 답사	2	1,2	교양	교양대학	

주목되는 점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익산지역에 소재한 원광대학교의 관련 강좌 개설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익산, 도시와 사람’ 교양과목의 경우 지역학에 기반하여 세계유산을 소재로 개설된 과목으로 세계유산의 입지지역학 교육에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대학 교과목의 경우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2022년 1, 2학기 강연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함.

(2) 전북자치도 세계유산 대중강연(특강) 현황

대학의 세계유산 관련 교과목 개설과 함께 전북자치도민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대중강연들도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강연들은 각각의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센터나 추진단,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세계유산 대중강연(특강)현황에 대한 표이다.

전북자치도 세계유산 대중강연(특강)현황(2022)

순번	주최기관	강좌명	일자	비고
1	백제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	23.4.~10.	백제역사유적지구
2	국립익산박물관	사리장엄구 국보 지정 기념 특별강연	22.12.	백제역사유적지구
3	정읍 무성서원 모현회 세계유산 활용사업단	시를 읽는 마음	22.11.	한국의 서원
4	고창군	2022 고창학 아카데미	22.8.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련 대중강연의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 중 한국의 서원(2019), 한국의 갯벌(2021)의 세계유산 등재가 코로나 19가 전개되고 퍼지던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관련 대중강연 등의 행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2022년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에도 최근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과 한국의 서원 관련 대중강연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성화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4. 세계유산과 지역, 지역학과 세계유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 존재와 그 활용은 지역의 공감과 가치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필두로 크고 작은 지역행사까지 세계유산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성화가 지역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경제성 분석과 같은 접근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 관광객 추이를 통하여 세계유산이 지역에 준 긍정

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절을 달리하여 향후 세계유산과 지역학이 공존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관광객 추이

세계유산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이를 직접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지역 관광객 수효를 분석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문화 진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1)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고창, 2000년)²²⁾

고창 고인돌 유적의 경우 가장 이른 2000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정비나 관련 전시시설물(고창고인돌박물관)이 활성화된 편이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약 19년간 고창군 주요관광지점 18개소를 찾은 관광객은 약 93,313천명이며 이중 고창 고인돌 유적을 방문한 방문객은 15,289천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창군 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선운산 도립공원(25,916천명), 고창읍성(20,986천명)에 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러한 관광객 비중은 2019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전시시설물과 연계한 관광객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2020년 9.2%, 2021년 7.3%, 2022년 6.4%로 감소하고 있다.

(2)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2015년)

2015년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익산에 위치한 유적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관광지점으로는 미륵사지, 백제왕궁박물관이 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익산을 방문한 방문객은 총 23,302천명(총 22개소)이며,

22)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은 2004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에 고창 고인돌 유적의 경우 2000년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미륵사지는 8,445천명(28.8%), 백제왕궁박물관은 3,820천명(13.0%)의 비중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전후 5년간(2013~2017년) 방문객 증가 추이가 다소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 점이다. 미륵사지의 경우 2013년 436천명 - 2015년 348천명 - 2017년 145천명으로 약 1/3이 감소한 반면, 백제왕궁박물관은 2013년 82천명 - 2015년 94천명 - 2017년 130천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백제왕궁박물관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꾸준한 방문객의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미륵사지의 경우 오히려 그 입장객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2020년 개관한 국립의산박물관 그리고 사리장엄구 출토 등 이슈가 되었던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사업이 2001년부터 2007년, 2014년, 2019년(복원 공개)까지 계속적으로 연장되면서 방문객 추이에 영향(계측방식의 변경 등)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의 서원(정읍, 2019년)

무성서원은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개소²³⁾ 중 전북자치도 정읍에 위치한 서원으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에서는 2017년부터 방문객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정읍을 방문한 방문객은 총 1,460천명으로 그 중 무성서원은 12천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0.8%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9년을 전후한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2천명 - 2018년 13천명 - 2019년 22천명 - 2020년 12천명 - 2021년 7천명으로 2019년 등재시점까지 꾸준하게 방문객이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하여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정읍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방문객 수가 약 61%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여파가 무성서원 방문객 추이에 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7년부터 2019년 등재 당시까지 방문객 증가율과 방문비율이 각각 1.8배 증가한 모습으로 보아, 2022년 엔데믹 이후 정읍의 역사 관련 콘텐츠로 무성서원이 방문객들의 수효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갯벌(고창,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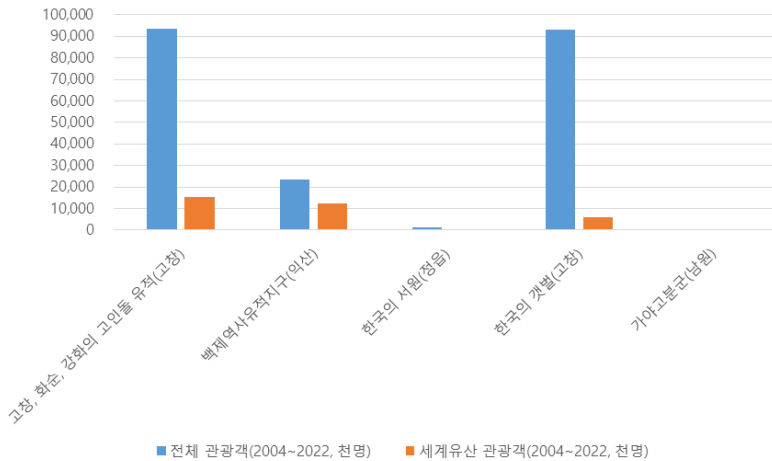
갯벌과 관련된 고창의 주요관광지점은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장호갯벌체험마을, 하전갯벌체험마을 등 4개소이다. 이들 관광지점의 2004~2022년

23) 소수서원(영주), 남계서원(함양), 옥산서원(경주), 도산서원(안동), 필암서원(장성), 도동서원(달성), 병산서원(안동), 무성서원(정읍), 돈암서원(논산) 이상 9개소.

관광객 수효는 총 5,961천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약 6.4%로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21년을 기점으로 관련 관광지점의 관광수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7.4배(장호갯벌체험마을), 2.6배(하전갯벌체험마을)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체험활동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고창지역에서 갯벌관련 관광콘텐츠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5) 가야고분군(남원, 2023년)

가장 최근인 2023년 등재된 가야고분군에 속하는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경우 관광객 수효를 측정할만한 전시시설물 등이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속적인 정비와 보존,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으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남원지역 주요 관광지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표는 위의 내용을 정리한 도안이다.²⁴⁾



〈그림 1〉 세계유산 관광객 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세계유산은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창의 경우 전체 관광객의 16.4%, 익산의 경우 전체 관광객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관광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

24) 정읍의 경우 2017년부터 방문객 통계를 집계하였으며, 가야고분군(남원) 관광객수효 측정 데이터가 없음.

지만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는 한계점 역시 명확하다. 먼저, 2020년 팬데믹에 의한 방문객 감소에 세계유산 관광지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역사에 기반한 세계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상 세계유산 관광지점의 다수가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단체 형태의 방문이 많았다. 하지만 팬데믹, 여행 형태의 변화(단체에서 가족단위) 등으로 인하여 역사에 기반하고 교육의 성격이 수반되는 세계유산 관광지점의 방문객 수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이후 등재된 세계유산의 경우 지역 관광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도 주목할만 한다. 정읍(무성서원) 0.8%, 고창(갯벌) 6.4%, 남원(가야고분군) 측정불가 등 고창과 익산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모습이 보인 반면 최근 등재된 세계유산은 그 파급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2020년 팬데믹의 영향과 함께 세계유산 자체가 대중들에게 주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한 전세계 유네스코 유산 등재 국가 순위(23.7. 기준)를 보면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건수는 55개(세계유산 15, 무형유산 22, 기록유산 18)로 이웃나라 일본과 같으며 영국(57개)보다 2개, 이란, 멕시코의 58개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강국이 되었다. 또한 2018년(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기점으로 2019년(한국의 서원), 2021년(한국의 갯벌), 2023년(가야고분군) 등 2~3년 단위의 짧은 간격의 세계유산 등재가 오히려 세계유산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중들에게 세계유산 자체가 이제는 신선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유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브랜드 자체가 아닌, 유네스코와 세계가 인정한 유산자체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학과 세계유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에 있어 세계유산의 존재가치는 지역

25) 장충희, 2020,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83쪽.

활성화의 기반이자 향후 문화기반 지역학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자치도 세계유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이 모두 타 지자체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연속유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계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세계유산 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강연, 체험행사 등이 ‘지역의 유산 = 세계의 유산’이라는 정체성 하에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의 등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가치의 제고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의 등재를 전후하여 관련 지자체에서는 큰 폭의 관광객 유치에 진행되었고 이는 지역 세계유산을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즉, 지역 세계유산의 존재가치는 안으로는 지역 정체성의 제고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밖으로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의 글로벌화를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제고와 경제적 가치의 확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북자치도 세계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학과 연계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유산 미래 향유세대인 유소년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활용방안은 대학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전문교육 및 교양 측면에서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다양한 행사의 한 측면으로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행사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 세계유산이 있는 익산, 고창, 정읍 등은 각각 세계유산과 관련된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⁶⁾ 이들 조례는 ‘세계유산의 등재’,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 나아가 세계유산에 기반한 지역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미래 향유세대들에 대한 교육 측면이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지역학 활동을 장려해야만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는 부단히 행정적인 단계로서 이는 관의 적법적인 절

26)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2020.1. 시행)』,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2023.1. 시행)』,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20.4. 시행)』.

차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과 맞아있는 활용 측면에서는 행정적 절차와는 다른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세계유산 관련 활용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궤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내 세계유산의 입지는 지역민에 의한 지역학 활성화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 19의 전개와 점차 복잡다단해지는 계층의 분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에서 이제는 소규모 단체나 가족 단위, 개인과 같이 다양한 계층이 세계유산 활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익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을 찾는 여행트렌드의 변화는 새롭게 등재된 세계유산 활성화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학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유산은 말 그대로 지역에 기반한 ‘세계적’ 유산이다. 이는 곧 지역학의 세계화라는 측면의 글로벌과 연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에 기반한 세계유산은 지역학의 발전단계에 있어 ‘지역학에 대한 연구 - 지역민과의 공감 - 지역문화의 세계화’라는 방향성 설정에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며 그 가치는 지역의 지역성을 배경에 두고 있다. 즉, 세계유산에 대한 활성화는 지역학에 대한 활성화이며 나아가 지역학의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세계유산은 분명히 지역의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지역학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의 존재양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유산과 지역학이 지속발전 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해야 하며 그 기반이 지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학’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낳은 지역과 지역학’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학의 가치와 경쟁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지역에 기반하

고 있는 세계유산이 지역학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학 측면에서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4. 07. 06. / 심사개시일: 2024. 07. 29. / 게재확정일: 2024. 08. 12.

참고문헌

1. 논문

- 김형균 외, 2015, 『피란수도 부산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문이화, 201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활성화 전략 -익산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30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5-34쪽.
- 문화재청, 2018,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전략 연구용역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박정민, 2020,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5-281쪽.
- 방미영, 2023,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제9권 제1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49-255쪽.
- 이재완, 2023,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선정에 대한 고찰」, 『문화재』 제56권 제3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20쪽.
- 이주빈·김선영,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백제역사유적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893-912쪽.
- 장충희, 2020,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기타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 Official website of the City of San Antonio, 2020, 「World Heritage Center Public Input Survey Results」.

<Abstract>

Jeonbuk State's World Heritage and Utilization Plan

- Focusing on Revitalizing Regional Studies -

ChoongHee, JA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linkage and mutual development direction between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nd regional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development.

The structur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orld Heritage sites located in Jeonbuk state was perform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e result showed that all World Heritage sites in Jeonbuk state are composed of 'serial heritage,' with linkage to other regions being an important characteristic.

In Chapter 3, the status of World Heritage site utilization in Jeonbuk state was examined by looking into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popularization events,' and 'World Heritage-related education.' Additionally, Chapter 4 investigated the positive impact of World Heritage sites on regional revitalization by examining the trends of World Heritage tourists using the 'The Korea 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 Analysis revealed that World Heritage sites located in the region play a significant role as tourist hubs and that the influence of these sites has decreased around the pandemic period. As an alternative to this trend,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vey the intrinsic appeal of the heritage to the public, rather than being fixated on the 'World Heritage' brand.

The study dre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mutual development direction between regional studies and World Heritage activation was set as a three-stage process: 'Research on regional studies - Empathy with local residents - Globalization of regional culture.'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a system is needed to appreciate the value of World Heritage sites as regional resource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the World Heritage brand itself.

Key Words : Regional studies, World heritage, Jeonbuk State, Regional resources,
Empathy and globalization

* Jeonbuk State Institute, Research Fellow